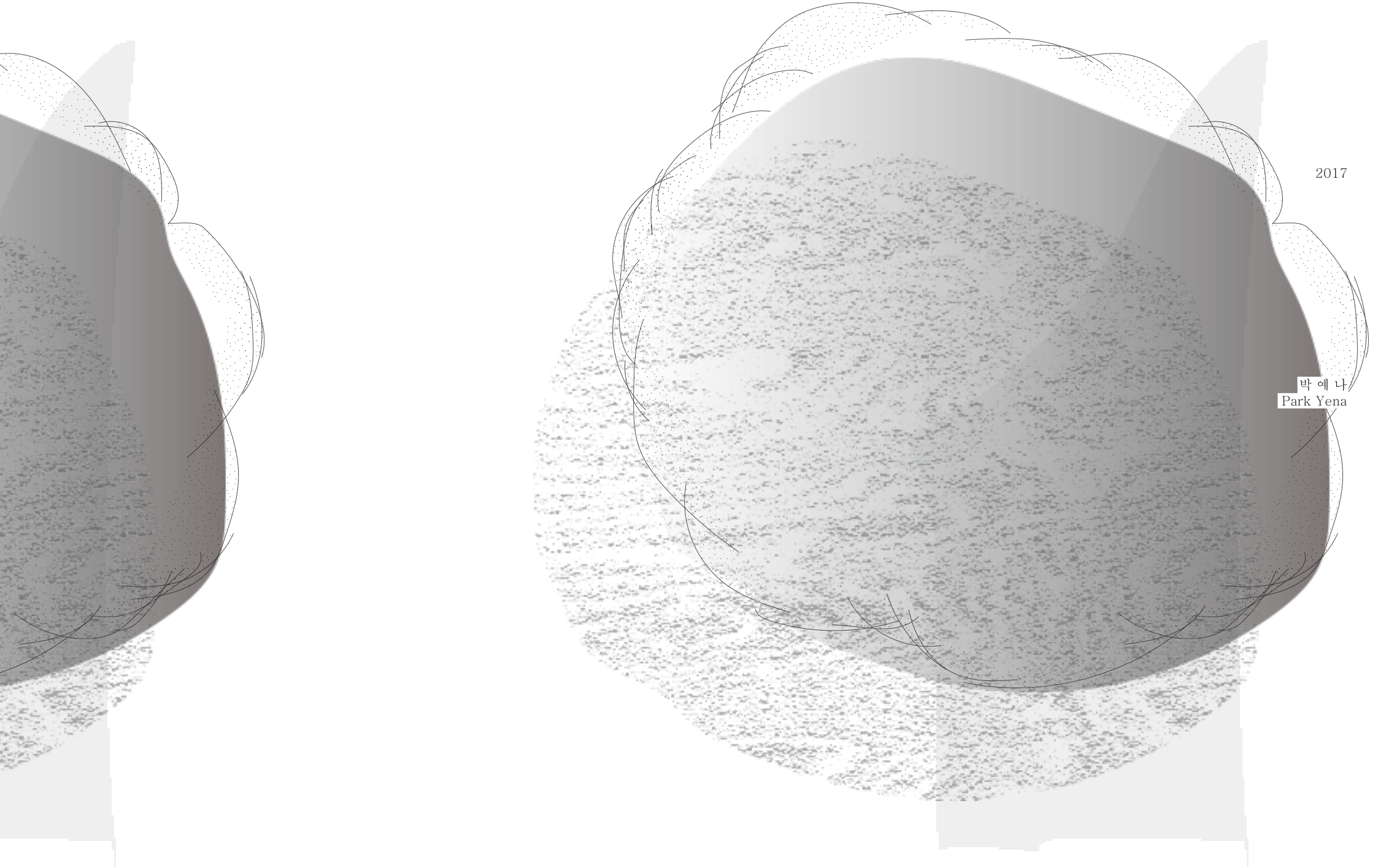


2017

박 예 나
Park Yena

드로잉 : 이탈을 위한 움직임
Drawing : Movement for a breakaway

2017

박 예 나
Park Yena

exhibition
이탈을 위한 움직임
Movement for a breakaway

2017. 11. 23 – 11. 29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17-14 아터테인 스테이지

드로잉 : 이탈을 위한 움직임
Drawing : Movement for a breakaway

기획, 글, 드로잉 :
박예나
Park Yena

yenaprk105@gmail.com
www.yenaprk.com

후원 :
서울문화재단

발행 :
2017.11.16

이 책은 서울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전시의 일부 작업물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절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1. 계속해서 부풀고 싶다, 그리고 유지하기, 움직이기
I want to continue to swell, keep and move

2. 약간의 반가움과 무거움
Slightly delightful encounter and heaviness

3. 낮은 곳에서 어른거리는 것
What lingers in unfamiliar place

4. 잠깐의 마주침에 의한 풍경조각
Landscape pieces by a moment of encounter

5. 제자리를 멤도는 스툴
A stool that go around in circles

6. 양방향(왕복)을 위한 움직임
Structure for both ways

7. 증발을 생산하는 상호적 구조
Interactive structure for producing eva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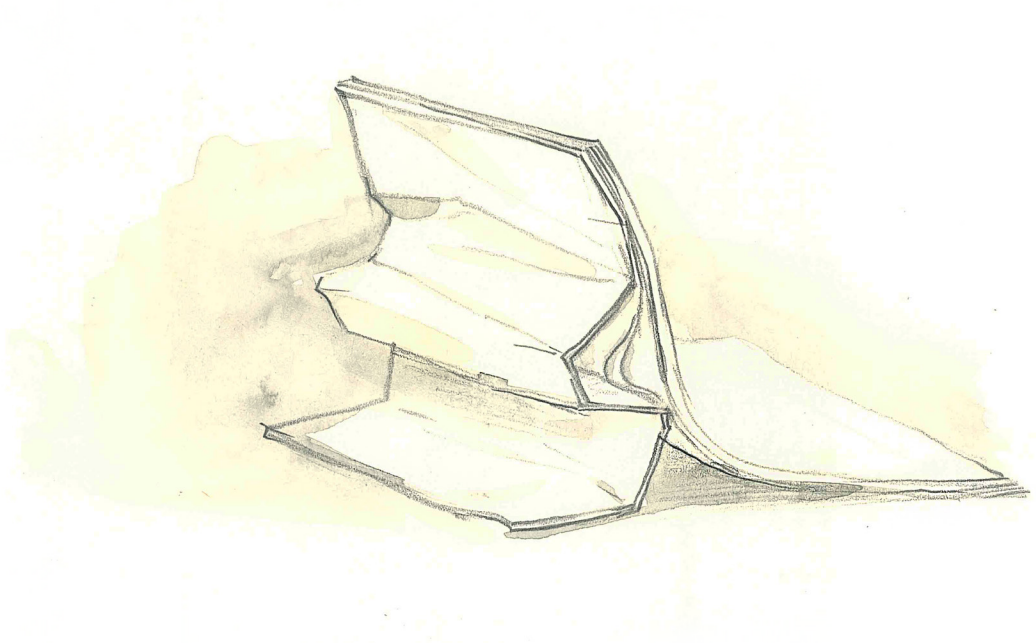
8. 적당한 대화를 위한 소파 테이블 세트
Sofa sets for moderate conversation

9. 나는 볼 수 없는 것
Things I can't see

10. 잠깐의 마주침을 위한 불연속적인 바람
Discontinuous wind for A moment of encounter

11. 기울어지는/움직이는 벽과 바닥
Slanting/Moving wall and floor

12. 어떤 마음의 몸체 1, 2, 3, 4
A mind as a thing 1, 2, 3, 4



어떤 마음의 몸체 4
A mind as a thing 4

두껍고 단단한 종이와 유연하고 부드러운 종이 여러 겹이 서로를 기대며 서있다. 하나같아 보이는 이 조형물은 두개의 상반된 것들, 구겨진 한쪽과 유연하게 구부러진 한쪽이 합쳐져 서로를 지탱하며 균형을 만들고 있다. 때로는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는 두가지 감정이 함께 공존할 때, 더 균형있는 상태가 되고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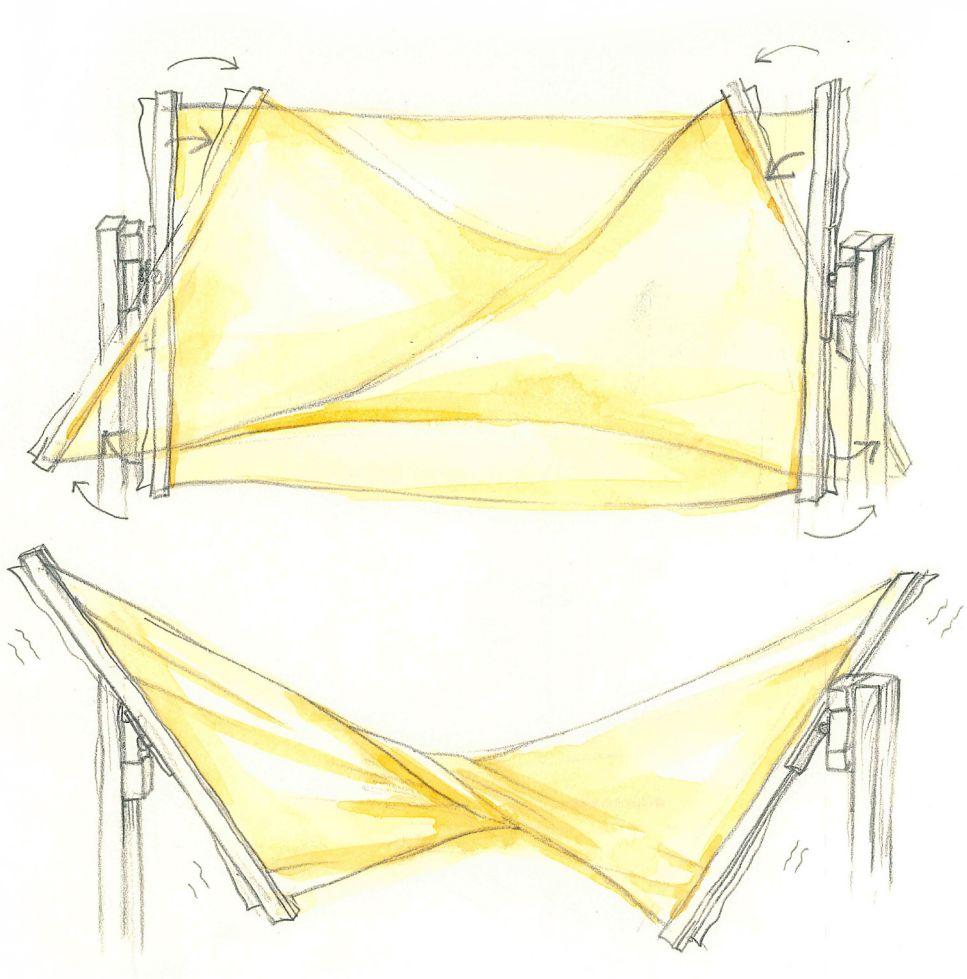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의 내부에서 느껴지는 감정, 떠오르는 생각들은 언제 어디서부터 생겨난 건지 모르게 나를 휘두르고 있다. 내 안에 존재하지만 온전한 내 것이 아닌 그것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외부로 부터 찾아와, 변화하고 진화를 거듭하는 미지의 것과 같이 느껴진다. 때문에 나는 스쳐지나가는 감정과 생각들을 곱씹으며, 그것들의 정체를 밝히고자 애쓰지만, 곱씹으면 곱씹을 수록 명료해지기는 커녕,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까지도 불확실해지고는 만다. 결국 나는 나의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 결코 명확히 할 수 없다는 두렵고도 자명한 사실에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렸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띈 그것들을 종이 위에 분출했다. 그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외부로 부터 영향받기 쉬운 것들이기에, 다치기 쉬운 얇은 종이 위에 그린다. 그리고 매달아 흔들리게 하고, 구겨지게 하기도 한다. 일시적인 해방감이 들었지만 내뱉어진 이미지들은 고정된 형태를 띄고 마치 진실인 양, 다시금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나로부터 분리해내고 싶었다. 형체가 없는 모호한 덩어리들에게 몸체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언젠가 부터 나는 나를 지배하려하는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에 휩싸여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을 때, 그것들을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제 3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모호한 그것들을 나와 분리시키고 각각 자신의 몸체를 가진 대상, 즉 제 3 의 존재로 만듦으로써 나는 그것들을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며,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해 보는 것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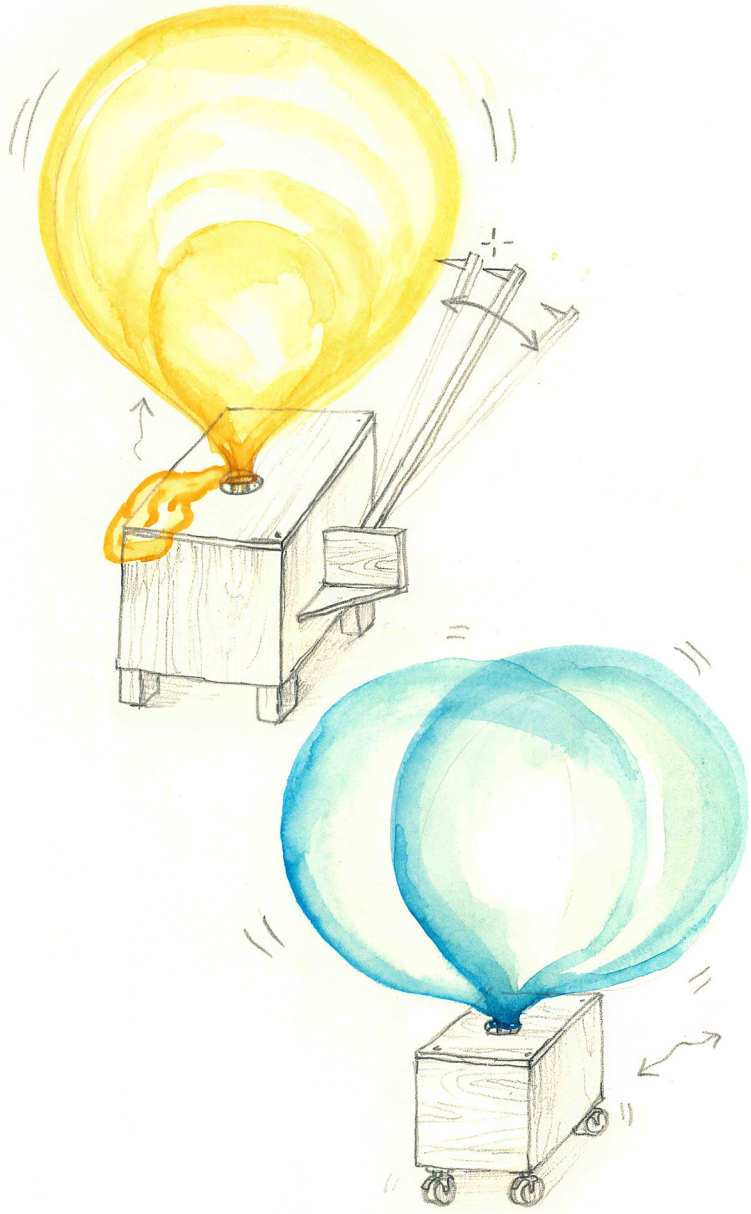
그 알 수 없는 덩어리들은 구체적인 대상과 단순한 움직임으로 치환된다.

2017.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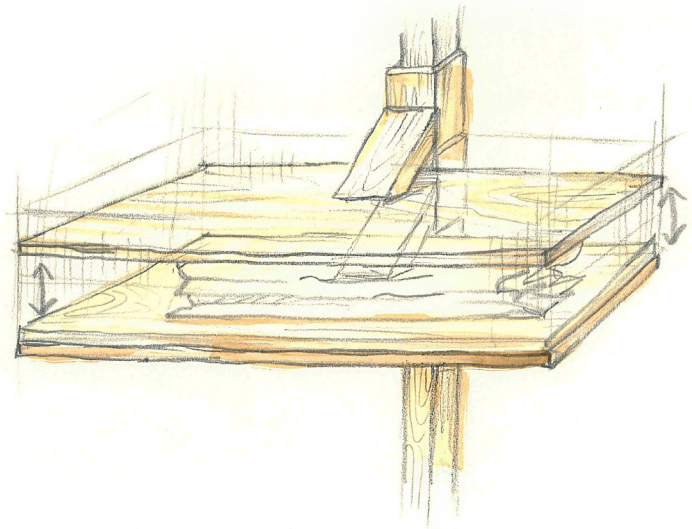
어떤 마음의 몸체 3
A mind as a thin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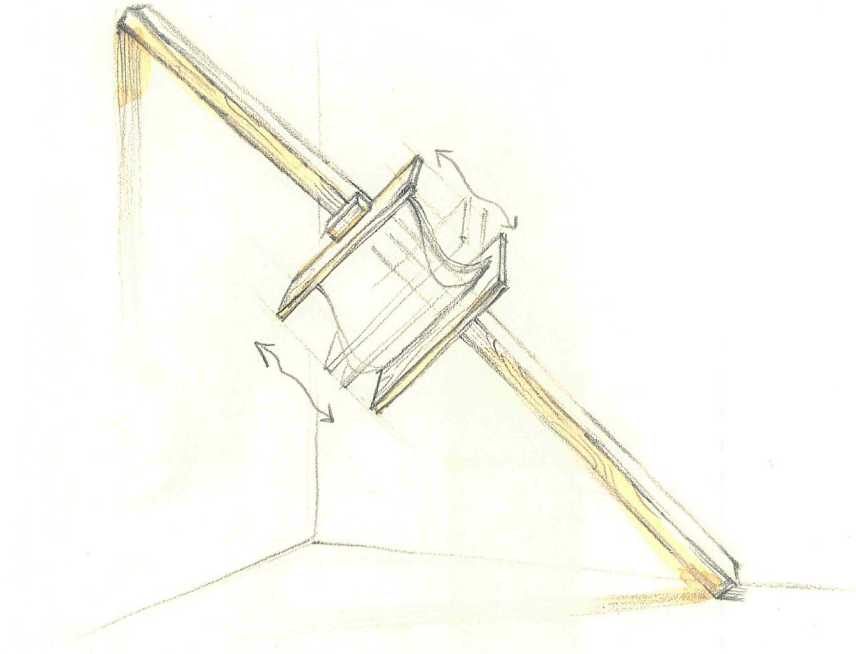
고무원단은 한번 구기면 다시 재형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빳빳한 종이와 다르다. 또 형태를 변형하기 힘든 단단한 철판과도 다르다. 유연하고 탄력있다. 판판하지만 약간 느슨하게 늘어져 있던 고무 원단은 비틀어지고,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며 꼬여진다. 그리고 조금 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고무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감정 상태에 대한 비유가 되기도 한다.



계속해서 부풀고 싶다, 그리고 유지하기, 움직이기
I want to continue to swell, keep and m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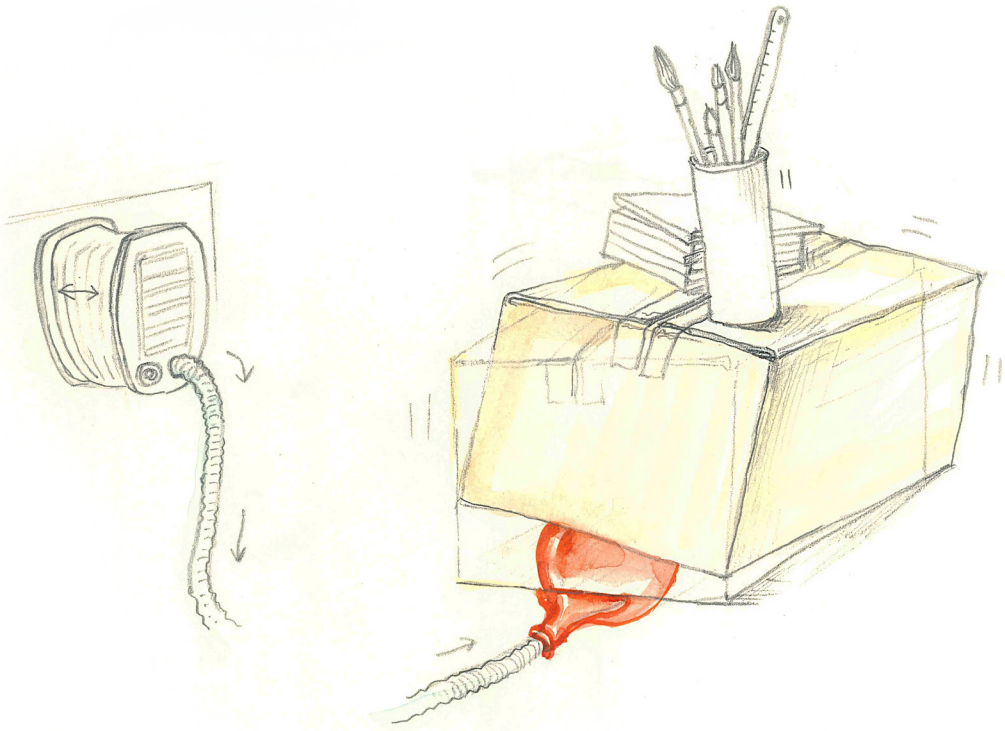
풍선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조금씩 부풀어오른다. 공기가 들어왔다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지만, 다시 금새 또 부풀어 오를 것이다. 팽창하는 풍선 주위에서 풍선을 노리는 바늘이 움직인다. 일정간격을 유지한다면, 풍선은 터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터진다 하더라도, 풍선을 다시 갈아끼우는 수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풍선이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기를 바라며, 그 과정이 반복,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풍선 장치에는 바퀴가 달려있어,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다. 바퀴로 인해 만들어지는 움직임으로 풍선의 바람이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테지만, 바람은 다시금 차오를 것이다.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부푼 풍선이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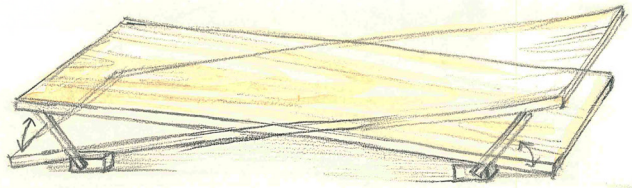
어떤 마음의 몸체 1, 2
A mind as a thing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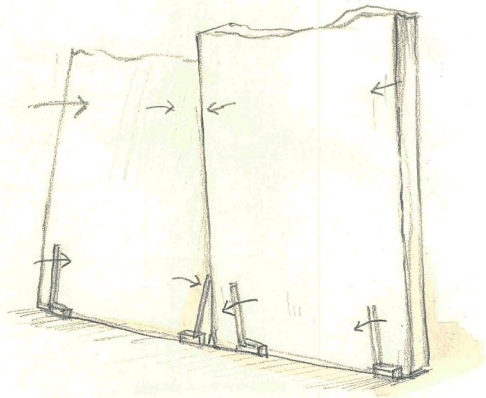
빠르게, 랜덤하게 들썩이는 나무 판 아래로, 과거 감정들이 담긴 드로잉들들이 구겨진 상태로 잠깐씩 들춰진다. 드로잉을 들출 때 마다 발생하는 나무판의 소리, 종이의 소리는 공간 전체에 울린다. 과거에서부터 곱씹고는 했던 감정들은 이제는 구체적인 형상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불쑥, 나왔다 들어가며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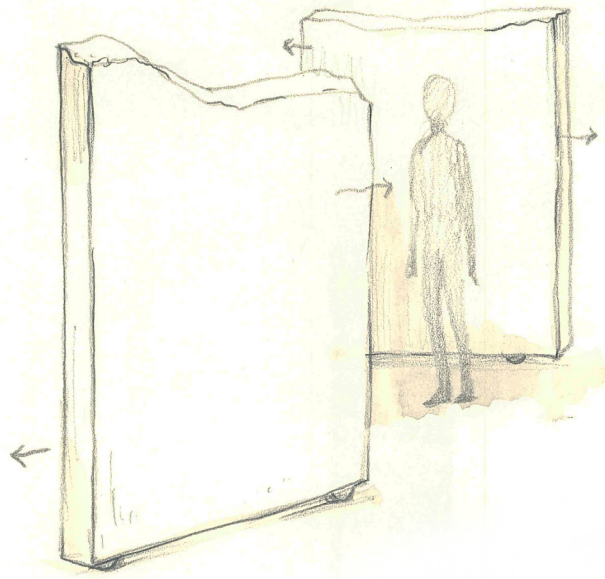


약간의 반가움과 무거움
Slightly delightful encounter and heaviness

작업을 하다 남은 흔적들, 미술관련 컬렉션, 도록, 책, 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들. 미술을 하고자 애써 모아둔 갖가지 것들은 잘 방문하지 못하는 작업실에 쌓여, 어느새 그저 '짐' 덩어리가 되었다. 본래 작업을 하기 위해 얻은 작업실에서 원래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그 짐들은, 욕망, 또는 미련의 덩어리들 같기도 하다. 작업실 현관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거나, 그것들의 옆을 스쳐지나갈때, 그들은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짐 덩어리의 무게로 금세 수그러 진다. 그 작은 반응은, 빗겨가는 동선에 의해 막상 들어오거나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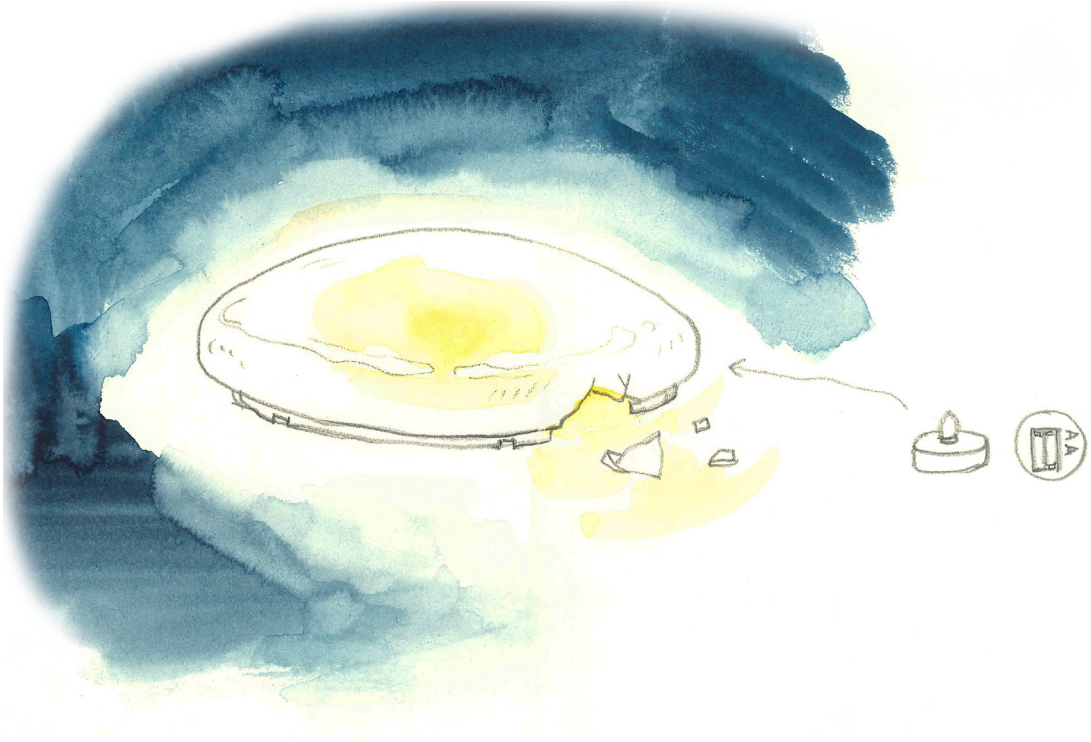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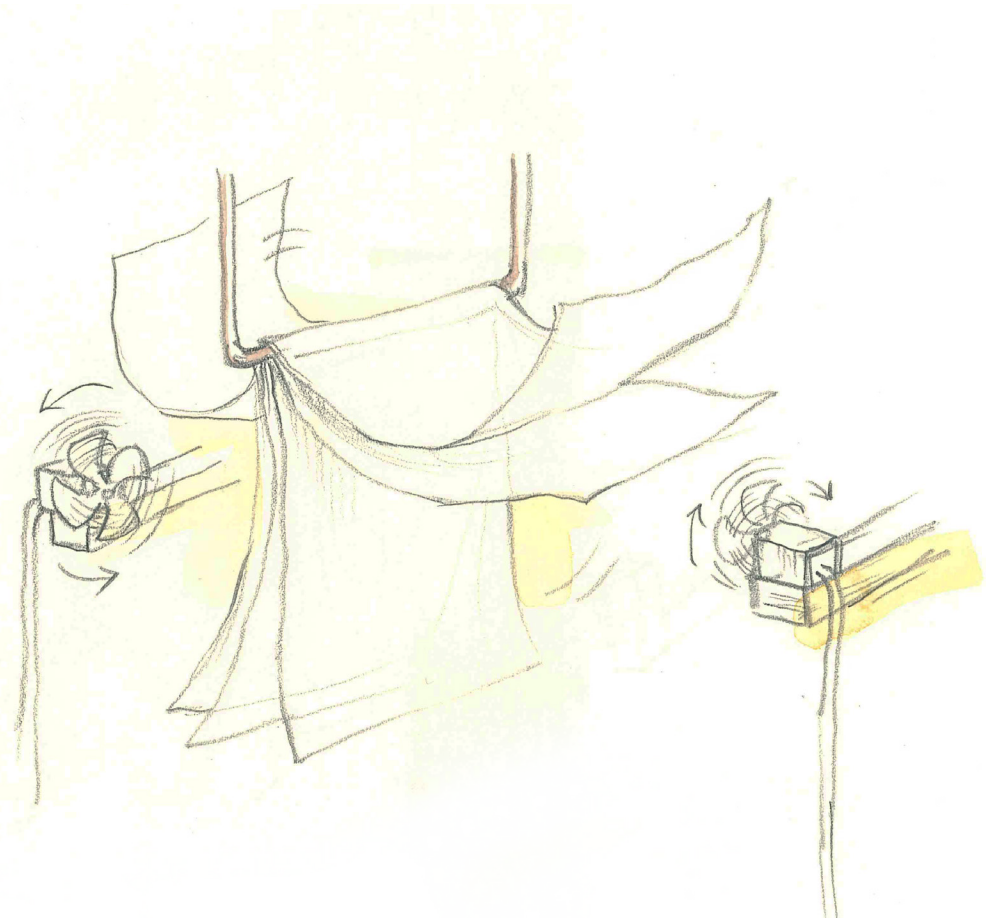
기울어지는/움직이는 벽과 바닥
Slanting/Moving wall and floor

정박된 선박에서 한동안 생활한 적이 있다. 배 안에서 생활 할 때는 바다의 일렁임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반대로 육지 땅을 딛으면 땅이 일렁이는 것 같은 감각이 몸에 스며들어 움직일 때 마다 튀어나왔다. 그 이상한 감각은 반나절 이상 지속되었다. 내가 계속 선박에서 생활한다면, 육지는 나에게 움직이는 땅이 되는 것일까? 고정된 것으로 느끼던 것은 순간의 감각적 체험으로 쉽게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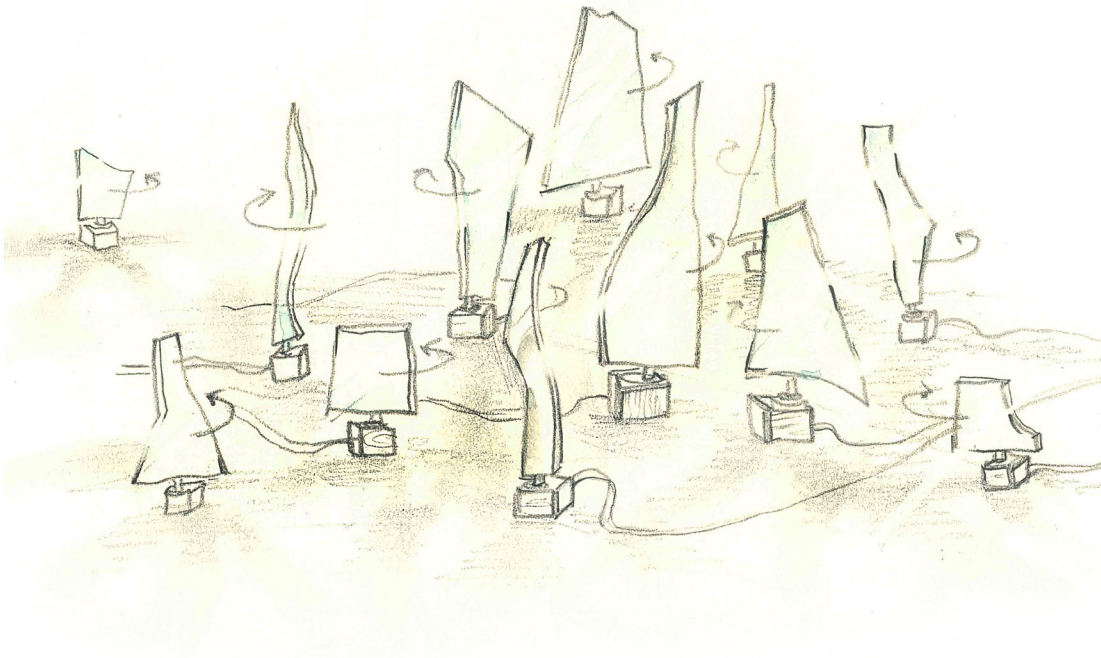
낮은 곳에서 어른거리는 것
What lingers in unfamiliar place

천장등의 빛을 감싸며 눈이 부시지 않게 빛을 퍼트려 공간을 밝혀주던 전등갓은, 바닥 구석에서 꺼질듯 말듯 희미하게 흔들리는 빛을 내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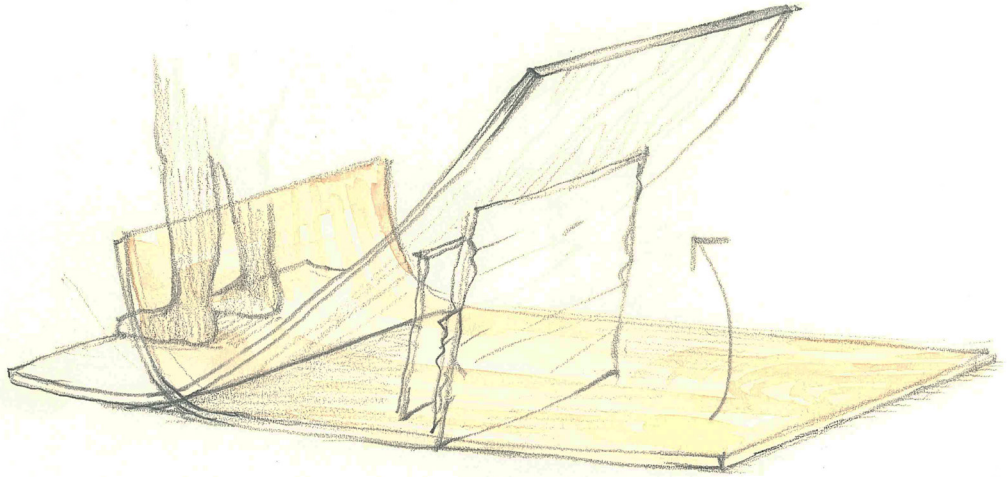
잠깐의 마주침을 위한 불연속적인 바람
Discontinuous wind for A moment of encounter

양 쪽에서 불연속적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바람으로, 공중에 매달린 얇은 드로잉들이 펄럭인다.
두개의 프로펠러가 동시에 멈추거나 돌아가는 순간, 드로잉들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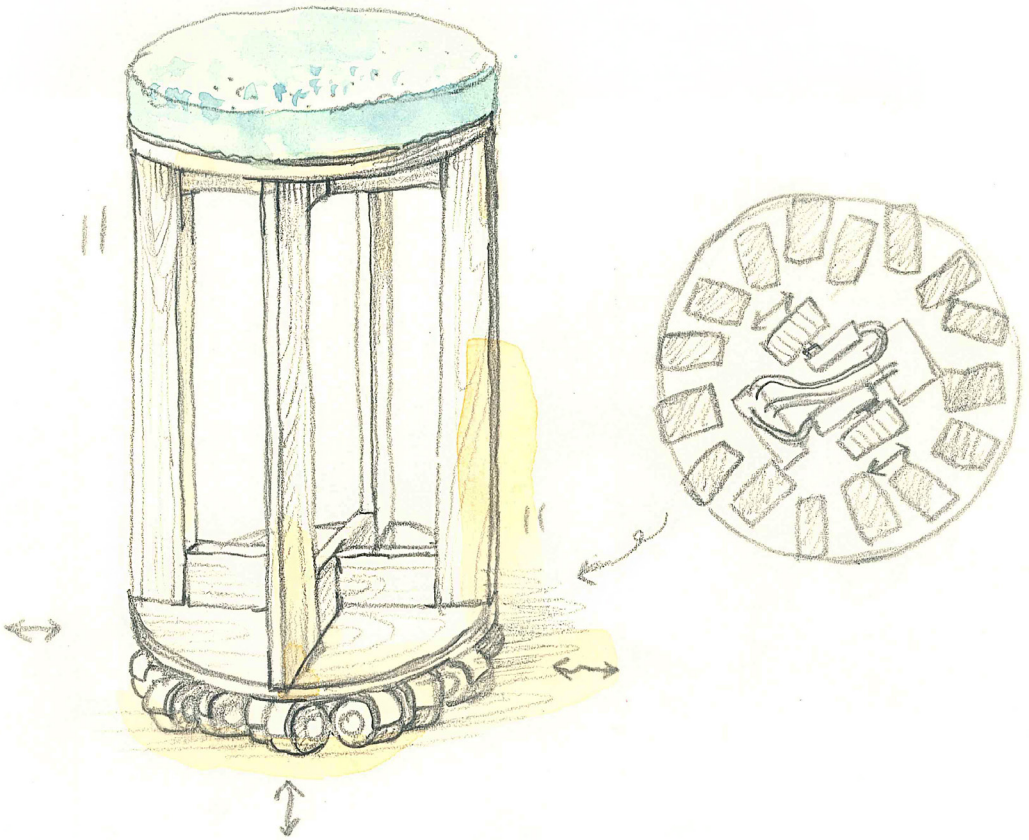
잠깐의 마주침에 의한 풍경조각
Landscape pieces by a moment of encounter

깨진 거울 조각들은 각각의 속도를 가지고 풍경의 일부를 잠깐씩 비추며 돌아간다. 풍경은 넓직히 온전하게 담기는 것이 아닌 조각난 파편들로 담겨지고, 그 마저도 아주 잠깐만 담게 된다. 온전히 담겨지는 풍경은 없지만, 거울 조각들이 서로서로 반사하는 빛들은 다시금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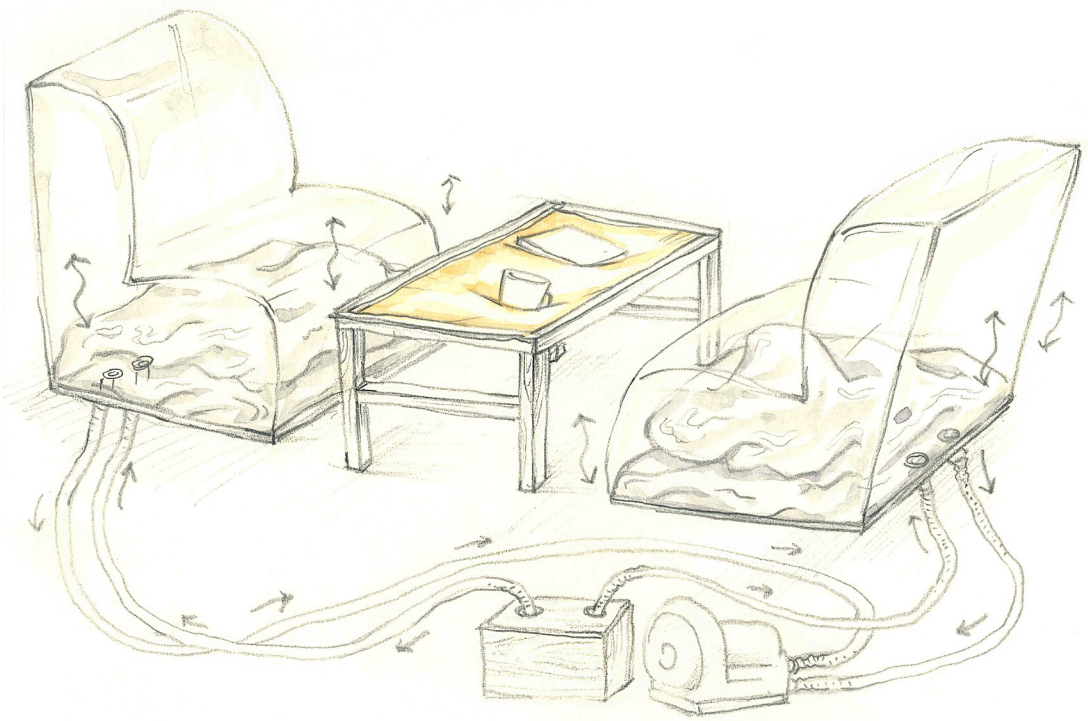
나는 볼 수 없는 것
Things I can't see

흰 합판에 자그마하게 문구가 서있다. 텍스트를 발견해 읽고, 지시하는 내용을 행하게 되면, 휘어진 뒤쪽이 조금씩 들리며 합판 바닥에 부착된 드로잉들이 펼쳐진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수행한 관객은 그 드로잉을 볼 수 없다. 또한 지시문의 실현이 반복되어 밑의 드로잉들이 드러날 때마다, 드로잉들은 점차 구겨지고 파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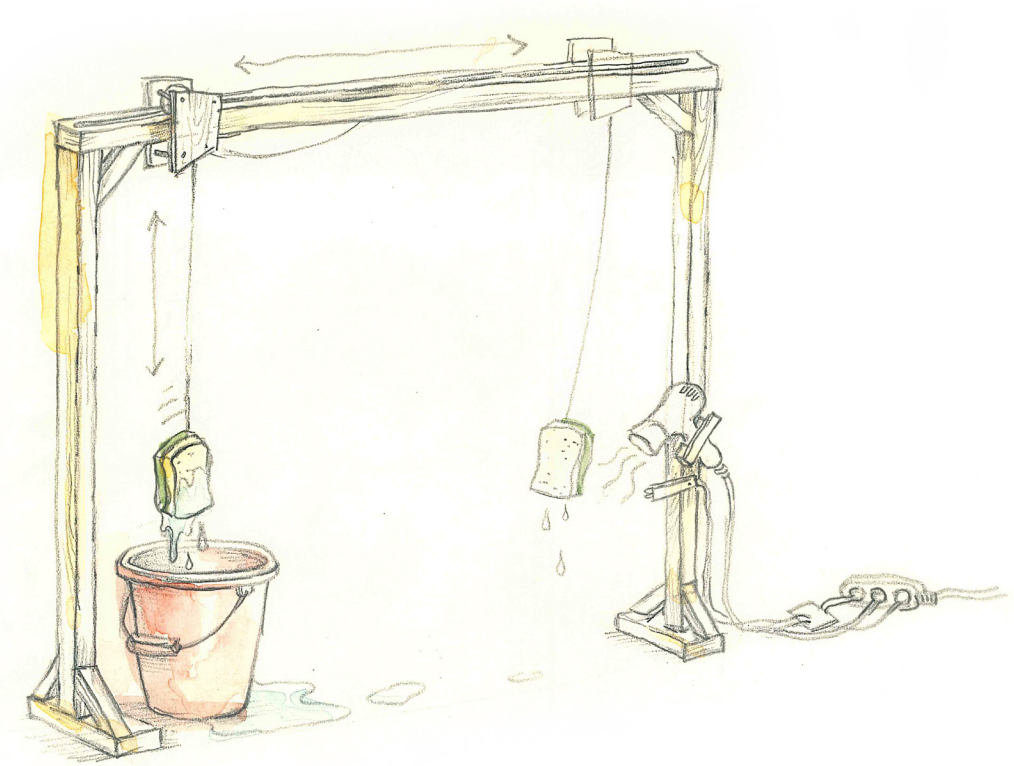
제자리를 맴도는 스툴
A stool that go around in circles

의자에는 회전 바퀴가 많이 달려 있다. 그러나 속도와 방향이 다르게 나아가게 설정되어 있는 바퀴로 인해 어느 한 쪽으로도 잘 나아가지 못한다. 결국 계속해서 제자리 만을 맴돈다. 다른 방향과 속도를 가진 것들이 억지로 공존하여 만드는 불협 움직임은, 어느 한 방향이 정해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망설이는 듯 한 모습 같기도 하고, 일정 주변을 맴도는 움직임은 무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다.



적당한 대화를 위한 소파 테이블 세트
Sofa sets for moderate conversation

처음에는 납작하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지만, 공기가 조금씩 차오르며 소파의 모습이 된다.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소파의 공기가 점점 빠지고 더 이상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소파는 다시 바람이 모두 빠져 납작해지고, 다시 바람이 차오르기를 반복하며, 앉으려는 사람들에게, 또는 앉아서 나누는 대화에 개입한다.



양방향(왕복)을 위한 움직임
Structure for both ways

바짝 마른 수세미는 물이 가득 든 양동이 속으로 쑥 담겼다 올라온다. 물을 머금은 수세미는 다시 반대편 드라이기를 향해 가고 수세미가 다가가자 드라이기가 작동된다. 물에 젖은 수세미는 한동한 건조되는 듯 싶더니 다시 양동이를 향해 간다. 왕복을 반복하는 수세미의 움직임은, 감정의 고양 상태와 결핍 상태 사이를 오가는 심리 같기도 하고, 어떤 상태, 상황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모습 같기도 하다.

증발을 생산하는 상호적 구조
Interactive structure for producing evaporation

다리미는 점점 뜨거워 진다. 그 뜨거움에 반응한 분무기가 물을 분사한다. 그러자 다리미의 열은 순간, 연기가 되어 흩어 진다. 분무기 분사가 반복되며 열이 사그러지면, 분무기의 작동이 멈춘다. 분무기 작동이 멈추자, 다리미는 다시 뜨거워지고, 분무기는 다시 물을 분사하며, 수증기가 흩어진다.